

# 휴탕물 범벅 쓰레기장 방불...수도·전기마저 끊겨 '막막'

르포-‘진흙도시’된 구례·곡성

‘물폭탄’을 맞은 구례·곡성 주민들의 상처는 깊고 컸다.

물도 끊기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밤을 지낸 주민들은 전등터를 방불케할 정도로 처참한 생활 터전을 정리하기도 바쁜데, 또 비까지 내리자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10일 오후 다시 찾은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5일 시장에서 만난 철물점 ‘조광기물’ 주인 고옥순(여·75)씨는 진흙으로 범벅이 된 빗자루와 걸레자루를 물로 씻어내며 탄식을 내뿜었다. “전기도 끊기고 수도물도 나오지 않는데 비까지 오니 속상해 죽겠다.”

비가 그치고 시장을 덮었던 휴탕물이 빠져졌지만 진흙이 범벅이 된 가재도구·옷가지 등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모두 망가지 것 같은데, 단수로 물이 나오지 않으면서다.

고씨 뿐 아니다. 시장 상인들 모두 답답한 마음에 어쩔 바를 몰랐다. 구례군이 1500t 살수차를 동원해 상인들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있었지만, 턱없이 모자랐다.

설거지는 커녕, 먹는 물도 모자란 상황에서 전기마저 끊겼다.

물도 다 안빠졌는데 또 비 뿌려 쓰레기·가재도구 치우며 한숨

전재산이던 소들 다 어디가고 사육장엔 한 마리만 덩그러니

주민들 수해 복구 구슬땀 속 “올해 농사 망쳤다” 망연자실

고씨는 “어두컴컴한 가게 안은 쌓아놓은 물건이 흩어 무너질까 무서워서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진흙이 덮여 있는 시장 바닥은 아예 걸어 다니기조차 힘든 형편이다. 밀려온 쓰레기도 가득 넘쳐나면서 쓰레기장을 방불케했다.

상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은 하나라도 더 견지려고 허리조차 펴지 못한 채 열심이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이날도 비를 뿌렸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진용상희(여·75)씨는 진흙과 기름때가 잔뜩 묻은 옷을 빨래판에 올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조씨는 “주유소에서 나온 기름이 옷에 묻어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다”며 울상을 지었다.

식료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다. 견어물가게를 하는 손정자

(여·75)씨는 시름 가득한 얼굴로 가게 안에 주저앉아있었다. 손씨는 “가게 안에 쌓아뒀던 고추, 마늘, 견어물을 다 내다 버렸어. 자그마치 1억은 넘을 건데”라며 “군에서 조금만 빨리 알려줬으면 이렇게는 안됐을텐데...”라며 울먹였다.

축산 농가들도 시름이 가득했다. 소들로 가득해야 할 봉서리 한 소 사육장은 소 한 마리만 덩그러니 사육장을 지키고 있었다.

봉서리에서 소를 키우는 이복순(여·69)씨는 때내려간 소 생각에 잠을 못 이룬다. 이씨는 하루 아침에 소 40마리를 잃었다. 이씨는 “소들이 어디 가서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알 길이 없어. 속 상해 죽을 것 같애”라며 “내 전재산이었는데...”라며 울상을 지었다.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며 물에 잠겼던 곡성군 신리마을 주민들도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었다. 75가구가 살고있는 신리마을은 마을 주민 대다수가 멜론, 감자, 딸기 농사를 짓고 있지만 섬진강 범람으로 한 순간에 모두 망쳤다. 곡성은 멜론 주산지이기도 하다.

문중식(70)씨는 “멜론 재배 비닐하우스 17동이 물에 잠겼다. 피해액만 비닐하우스 한 동에 1800만원 이상 될 것”이라며 “집이 물에 잠겨서 하우스는 가볼 엄두도 못내고



10일 오후 제5호 태풍 ‘장미’의 비구름으로 인해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구례군 5일시장에서 상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휴탕물 범벅인 상품들을 깨끗한 물로 씻고 있다. /구례=김진수 기자 jeans@

있다”고 했다. 문씨는 이날 하루종일 물에 잠겨 못쓰게된 가구들을 집안에서 꺼내 나르기 바빴다.

신리마을 이장 이윤희(57)씨는 “추석에 맞춰 출하하려고 기르고 있던 멜론이 다 못쓰게 됐다”며 “우리 마을 주민 대다수가

멜론 농사를 짓는데 이번 비로 피해가 상당하 크다”고 말했다.

/구례·곡성=김민석 기자 mskim@

## ‘人災’ 곡성 산사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수사 착수

도로공사 과정 발생한 토사 방수포 안 씌우고 방치 지적 경찰, 전문가들과 현장 조사

경찰이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산사태와 관련,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음에도, 전남도가 산사태 시작 지점으로 꼽히고 있는 ‘국도 15호선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방수포로 덮어놓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특히 공사를 발주한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측이 사고 구간의 경우 방수포 조치가 필요없는 지역으로, 해당 구간 일대에 쌓아놓은 토사도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산사태 피해를 입은 성덕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로 옆 산비탈 등에 쌓아놓은 토사가 빗물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흘러 내려 사고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경찰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곡성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측이 산사태가 시작한 지점에서 진행하던 ‘국도 15호선 곡성 오산 연화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관련, 안전



산사태로 5명의 주민을 잃은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성덕마을. 지난 7일 오후 발생한 산사태로 6가구가 토사 파묻혔다. /곡성=최현배 기자choi@

조치 이행 여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경찰은 토목전문가 등과 사고현장을 둘러보는 것을 시작으로, 수자원관리공사, 해당공사 감리단,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들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우선, 도로공사 현장 옆 경사로

에 토사를 다져놓은 점을 발견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진행키로 했다. 많은 양의 비가 지반에 스며들면서 약해져 산사태가 발생하는 점에 주목, 토사를 다져놓은 것만으로 산사태를 막는 데 도움이 됐는지 여부

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곡성군 관제CCTV 영상을 확보, 공사 과정에서 토사가 얼마나 쌓여있었는지, 방수포 등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고 전 발생한 정전으로 CCTV 영상이 1시간 가량 녹화되지 않은 점이 발견되면서 산사태 원인 규명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공사 과정에서 경사로에 쌓아놓은 토사가 빗물에 흘러내리며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전남도 측은 “자연사태의 원인으로 인한 산사태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공사 발주처 측은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노조 와해’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의장 2심서 무죄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의장을 제외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모두 1심처럼 유죄 판결이 유지됐다. 다만 일부 형량이 깎인 이들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의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서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로 약감 줄었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량이나 집행유예 기간만 조금씩 줄었다.

실무를 책임진 최병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목장군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 4개월) 등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삼성전자의 노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노무사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두 법인 중 삼성 전자서비스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삼성전자는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들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만든 노조 와해 전략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됐다고 보고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역시 1심에서 인정된 혐의 구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미전실을 중심으로 노사전략을 수립하고 각 계열사에 전파하고, 계열사에서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했다”며 “피고인들은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를 했고, 헌법상 권리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무시해 근로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6명 중 25명이 똑같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